

K리그 3월 3일 전북-성남 개막전... 올시즌 9개월 레이스 돌입

광주FC 3월 4일 상무와 맞대결

전남은 3월 4일 홈서 강원과 격돌

'K리그 막내' 광주 FC가 3월4일 상무 상무를 상대로 두 번째 시즌을 연다.

1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2년 K리그 일정표를 발표했다.

K리그는 오는 3월3일 전북 현대와 성남 일화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광주는 4일 오후 3시 상무시민운동장에서 2012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의 홈개막전은 1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상대는 포항 스틸러스다.

전남 드래곤즈는 4일 오후 3시 강원 FC를 흠으로 불러들여 2012시즌 첫 일정을 소화 한다.

승강제가 시작되면서 K리그에 스플릿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K리그 16개 팀은 기존과 마찬 가지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30라운드를 소화한 뒤 상위리그 8개팀과 하위리그 8개팀으로 분리해 대결을 벌인다.

상위리그와 하위리그 팀들은 각각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9월15일부터 12월9일까

지 각각 14라운드를 더 치르게 된다.
상위리그에서 1위에 오르는 팀이 우승팀이 되고, 하위리그 순위에 따라 하위 2개팀이 강등팀이 된다.

리그 우승팀에게는 3억원의 상금과 트로피, 메달이 수여되며 준우승 팀에게는 1억 50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스플릿 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규리그 경기수는 지난해 30경기에서 총 44경기로 늘었다.

새로 추진된 월요일 경기는 두 경기가 편성됐다. 5월28일 전남과 광주가 각각 부산과 대전을 찾아 월요일 경기를 펼친다. 경기 시간은 오후 3시다.

프로 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월파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르는 팀들의 체력적인 문제와 방송중계권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 구단들이 원활 경우 월요일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도한 러시아 피겨요정

러시아 엘리자베티 톡타미세비가 18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올림피아월드 아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동계 유스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차범근 런던올림픽 성화 봉송 한다



차범근 (59)
SBS 런던올림픽 방송단은 한국 주관 방송사에 할당된 봉송주자 1명으로 차 위원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차 위원은 현지시간으로 7월20일 런던 동쪽 도시인 그레이브랜드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가한다.
차 위원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주자로 뛰게 돼 쾌속입니다"며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패어플레이가 무었보다 중요한 올림픽에 동참하게 돼 여러 의미를 되새겨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 위원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도 성화봉송에 참여했으나 그때는 국내에서 뛰었다.

차 위원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공

격수로 활약하면서 98골을 터뜨렸다. 주축 골잡이로서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을 한 차례씩 유럽축구연맹(UEFA)컵 월피아자리에 올라놓았다.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외국인 선수 중에서 최다 골을 넣으면서 단 1장의 엘로 카드만 받을 정도로 패어플레이를 펼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차 위원은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지만 선수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적은 없다.

/연합뉴스

정영호 레슬링 런던올림픽대표 1차 선발전 우승

〈광주남구청〉

광주 남구청 레슬링팀의 정영호가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영호는 14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대회 과정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자유형 66kg급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이재호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영호가 오는 4월에 열리는 2차 선발대회에서도 1위에 오르면, 3차전을 치르지 않아 런던행을 확정짓게 된다.

한편 그레코로만형 84kg급의 박달, 96kg급의 류지완 그리고 자유형 74kg급의 김도욱이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남구청은 이번 대회에서 1개의 금메달과 3개의 동메달을 쓰러졌다.

조선대 김홍배는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홍배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파견 선발전 남대부 그레코로만형 74kg급에서 한국체대

나주출신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박소연(15·강일중)이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소연은 17일(현지시간) 인스브루크 올림피아월드 아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44.79점, 예술점수(PCS) 44.44점에 감점 1점을 더해 88.23점을 받았다.

박소연은 15일 연기한 쇼트프로그램 점수(48.37)를 합해 총 136.60점으로 최종 순위 4위에 올랐다.

엘리자베티 톡타미세바(러시아)가 173.10점으로 우승했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159.08점으로 은메달, 리쓰진(중국)이 157.70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5위에 올랐던 박소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순위를 끌어올렸으나

실수가 많아 메달권으로 뛰어오르지는 못했다.

첫 과제였던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토루프-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러츠 단계부터 엉덩방아를 짓고서 두 번의 점프에서 연속으로 헛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소연은 트리플 살고-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부터 안정을 되찾았으나 초반에 잊어버린 점수가 많아 역전에는 실패했다.

먼저 연기한 선수 대부분도 실수를 연발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였다.

금메달을 딴 톡타미세바는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 넘어지고 더블 앤더스 점프를 1회전 처리하는 등 실수가 많아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링크를 떠났다.

소트니코바는 두 차례나 감점당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을 펼치고 결승에 올라 화제가 됐지만 강유택 4단에게 패해 둘째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최연소 프로기사 이동훈 초단

비씨카드배 와일드카드 선정

최연소 프로기사인 이동훈 초단(14)이 제4회 비씨카드배의 '와일드카드'로 선정됐다고 한국기원이 18일 밝혔다.

올해 첫 세계대회인 '비씨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지난 16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12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와일드카드'는 대회 흥행을 위해 예산을 면제받고 바로 본선에 직행하는 선수를 뜻한다.

이동훈은 오는 3월3일 시작되는 본선 64강 때부터 합류한다.

이동훈은 지난해 5월 만 13세3개월의 나이로 제12회 청구생 입단대회 결승에서 승리해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13세 입단은 박정환 9단이 2006년 5월 13세4개월의 나이로 입단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동훈은 입단 후 제1기 KC&A(한국종합 무역회사) 배 신인왕전에서 선배 기사들을 꺾고 결승에 올라 화제가 됐지만 강유택 4단에게 패해 둘째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사무실임대

3층 120평 분할 가능
나주시청 정문앞 삼성빌딩
면적 : 010-9217-7570

▲광주회장도요신의회 조계산 1월21일(토)

07시30분 열주체육관, 07시45분 광주역, 08시00분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 광주회장도요신의회 T.010-7750-7210, 010-9602-3925, 010-3649-8934

▲주간건물관리사업부 제주도한라산 등반·올라길워킹 1월21일(토) 1박2일(4~5인실 79,000원부터) 카드결제가능, 매일출발

목포, 녹동(고흥), 완도출발 *다음카페 : ht-

tp://www.gunguntour.co.kr T.1588-4767

1월21일(토)

1월28일(토)

1월25일(토)

1월29일(일)

1월29일(일)